민주 당대표 후보군, 잇따라 전북 방문

김민석 총리 · 정청래 전 대표, 도당 당선인 워크숍 참여

송영길 의원, 28일 전주서 타운홀 미팅로 당심 확보 나서

오는 8월 17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 주자들은 전국 당원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세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으로 19만 4천여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에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5일 전북 정읍에서는 민주당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당대표가 참석해 당선인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당대표 경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으며 당심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28일에는 송영길 의원이 전주를 찾아 도민들과 직접 만난다.

이날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83 코오롱 스카이타워 빌딩 204호에서 열리는 '송영길의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다.' 타운홀 미팅은 지지자와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

이번 행사는 민주당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전북 지역 정치권과 당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북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향후 당대표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63년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직선제 초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방송통신대 일본어과와 중어중문학과 2개 과정을 공부하여 졸업하는 등 만학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천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6선 국회의원에 오른 대표적인 중진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제16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후 제17대, 제18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총 여섯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시절 러시아 특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및 전당대회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석 출소 이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출마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다시 국회에 복귀했다.

현재 송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다.

이번에 전주에서 열리는 송영길 국회의원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가 발전 전략과 민주당의 미래 비전, 당 혁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들의 관심도 또한 높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전북 정치권 역시 주요 후보들의 방문과 정책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 당원들과 도민들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기자

민주 도당 당선인 워크숍

정청래(아랫줄 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들이 25일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민주 박희승 의원 공동주최

국제보훈 평화 프로젝트 성료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음악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강뉴 합창단 한국 초청 국제 보훈 평화 프로젝트' 음악회를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강뉴부대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정희용·천하람 의원과 국가보훈부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주관하고 LG가 후원했다.

강뉴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의 정예부대다. 총 6,037명의 장병이 참전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전쟁 기간 단 한 명의 포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헌신은 한국전쟁사에서 특별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강뉴 합창단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손자녀들로 구성된 청소년·청년 합창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발전 위해 변화 · 혁신 필요"

김관영 도지사, 퇴임 앞두고 감사 인사 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 30일 퇴임을 앞두고 25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출입 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부터 30일까지 후임 도지사의 사무실 개선 작업을 위해 연가를 내고 도정 업무를 정리하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4년간 도정 운영 과정을 도민들에게 전달해 준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북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 차원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 유치 경쟁과 관련해 "광주·전남은 통합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사업 유치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전북도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 아무런 변화 없이 예산과 사업만 요구해서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 권역 지자체 통합과 같은 지역 통합 논의도 국가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때 정부도 지원의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전북도 미래를 위한 도민들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은 도민들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우선"이라면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도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퇴임을 앞둔 김 지사가 도의회 출입 기자들과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기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차기 도정의 성공을 기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 상임위장 선출

의장 후보에 최주만 의원

비민주계 의석 10석 확보로 과거보다 영향력 커질 듯

혁신당 등 비민주계 10명 부의장 · 상임위장 요구 등 공동 대응 나서기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최주만 시의원(전주 다, 사진)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주시의회 당선인 26명을 대상으로 25일 오전 전주시의회 소강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주만시의원(전주 다)은 16표를 얻어 10표를 획득한 최명철 의원(전주 라)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성규(전주 바)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결과를 발표하며 제13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최주만 시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최주만 후보는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36명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시의장으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시의장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4선 의원인 최주만 후보는 전주갑 지역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한결같이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당 정체성과 선명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억울한 주민이 없는 전주시를 만들며 민생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선출로 전주갑 지역위원회가 의장직을 맡게 된 반면, 최명철 시의원(전주 라)이 속한 전주 을 지역위원회는 이번에도 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부의장 후보 선출에서는 3선의 김동헌 시의원(전주 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획득한 김윤철 시의원(전주 가)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후보는 모두 단수 추천 방식으로 결정됐다. 운영위원장 후보에는 은혜정 시의원(전주 차), 행정위원장 후보에는 최명권 시의원(전주 카), 복지환경위원장 후보에는 김정명 시의원(전주 다), 문화경제위원장 후보에는 이성국 시의원(전주 사), 도시건설위원장 후보에는 최서연 시의원(전주 아)이 각각 민주당 추천 후보로 의결됐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1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3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13대 전주시의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26석, 비민주당 10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야권 및 무소속 시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5명, 진보당 1명, 무소속 4명 등 범 야권 연대 시의원 10명은 지난 23일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교섭단체명을 '혁신진보시민연대'로 정하고 원내대표에 경현철 시의원(전주 자), 부대표에 채영병 시의원(전주 바)을, 공동대변인에 최한별 진보당 시의원(전주 카), 채민석(전주 가)시의원을, 간사에는 이수진(조국혁신당 비례대표)시의원을 선출하고 25일 전주시의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의회 운영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로 했다.

범 야권 연대 시의원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부의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 3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임시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농촌지역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농업기계 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 체계 구축을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 운전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및 차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열린 시정의 초석 '열린 전주 소통 공간' 시민 참여 활발

전주시장직 인수위, 본격 가동 후 시민의견 총 226건 접수

민선 9기 전주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 소통과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열린 전주 소통공간'이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는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기반의 열린 전주 소통 공간을 본격 가동한 이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26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시정 운영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접수 후 3일 이내에 소통팀이 접수 사실을 알리고, 10일 이내에 담당 분과 또는 관련 부서가 처리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채택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226건 가운데 107건은 답변이 완료됐으며, 106건은 접수 후 검토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3건은 처리 대기 상태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가입자 수는 237명이며, 공식 운영 이후 누적 방문자 수는 5만 3,166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의견에 공감한 횟수는 2,640건, 댓글은 351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특히 접수된 제안들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시정 로드맵과 공약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과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각 분과위원회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에 공감하거나 댓글을 통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여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행정 의사결정 과정과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 전주 소통공간은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에 그치지 않는다. 위원회는 5개 분과와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약속 100일' 코너를 통해 조지훈 당선인의 취임 후 100일간의 활동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정 운영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새로운 행정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열린 전주 소통공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활동 종료 이후에도 이 공간을 시민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시민과 행정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균형발전 위한 호남 반도체 시대 열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검토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공동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도의원 일동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광주·전남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북을 배제한 채 대규모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정한 균형발전은 3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가 광주·전남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을 포함한 분산 배치 방식으로 추진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분산형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